

P74

잔디병원균 *Rhizoctonia solani*에 대한 길항 미생물주우홍 · 김순정 · 최승태<sup>1</sup>

창원대학교 생물학과

<sup>1</sup>창원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식물에 피해를 끼치는 병해충의 종류는 현재 수천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농산물의 경우 재배기간이나 저장 중에 병해충 또는 병원균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기타 식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라는 동안에 병해충 또는 병원균의 침입을 받아서 고사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농약인데, 이렇게 편리한 농약이 최근에는 안전성 문제, 잔류문제 (농작물, 토양, 환경),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여러 문제, 공해유발 등 유해론이 제기되면서 부정적인 시간이 점차 증대되는 추세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농약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현재의 농약보다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은 미생물의 활성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법이 각국에서 연구되어 많은 제품들이 실용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부응하여 본 연구에서도 우선 잔디에 병원균으로 작용하는 *Rhizoctonia solani*를 대상으로 길항력을 가지는 미생물을 분리하였다. 분리된 미생물은 주로 *Bacillus*와 효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미생물을 petri dish에 3점법으로 서로 인접하게 배양한 결과 *Rhizoctonia solani*는 *Bacillus*와 효모가 분비하는 항진균물질에 영향을 받는 영역에서는 자라지 못하고 clear zone을 형성하였다.